

## University of Pittsburgh Medical Center 에서의 실습을 마치며

Internal Medicine (Hematology) Clerkship in UPMC Oakland : July 05 – July 29

백혜린 (본과 4년)

### Introduction

본과 3 학년 산부인과 실습 때, 독일에서 교환 학생이 와서 한 달 간 같이 실습을 돈 적이 있었다. 그 당시 그 친구는 자신의 병원을 떠나 새로운 의료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처음이었고, 많은 것들에 정말 신기해했던 기억이 난다. 그 학생과 이야기하며 각 나라의 의료 체계와 병원 시스템, 의학에 대한 배움과 환자-의사 관계에서의 태도, 의사로서의 삶의 자세 등이 큰 틀은 비슷하지만 많은 것들에서 다르고, 또 의학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렵듯이 느낄 수 있었다. 그 친구와의 만남을 계기로 더 넓은 세상을 접해보고 체험하고 싶어졌다. 본과 4년 동안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며 우물 안 개구리처럼 매일 보는 병원이 우리가 아는 모든 의료 현장의 전부인 양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다.

또한 실습을 돌며 의학계의 많은 연구들이 미국이나 유럽의 연구와 practice 를 통한 trial 에 기반한다는 것을 보고 배우며, 연구가 활발한 미국 병원에서 꼭 실습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 각지의 의과대학 학생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레지던트, 펠로우, 교수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그들과 교류하며 더 넓은 세상을 체험해보고 싶었고 따라서 미국 대학 일렉티브를 지원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학부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의사소통이 수월한 미국을 선택하게 되었고, 동부에 위치한 비교적 규모가 큰 병원에 가고 싶어 피츠버그를 선택하게 되었다.

분과는 내과를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의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가장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고, 인원, 시설, 환자수로 보아도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또한 의대에서 배운 다양한 지식을 적용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도 지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혈액종양내과는, 개인적으로 내과 중 가장 관심이 많은 분과이고, 비교적 수술에 의한 치료보단 내과적인 치료가 주된 분야이며 CBC, cytogenetics 등 다양한 검사결과를 통해 질병을 rule out 하는 과정이 흥미로울 것 같았다. 또한 다같이 blood smear 를 보고 환자에 대해 의논하는 과정이 흥미로울 것 같아서 지원하였다.

## University of Pittsburgh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Pittsburgh Medical Center (UPMC) 는 Pennsylvania 주의 University of Pittsburgh College of Medicine 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병원이며, 총 21 개의 병원이 있는 브랜드 병원이다. UPMC 는 중국, 영국, 카타르 등 해외에도 브랜치 병원을 확장하여 가고 있다. 내가 실습한 병원은 UPMC Oakland 이며, 이는 본원에 해당한다. UPMC Oakland 는 크게 다섯 개의 병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UPMC Presbyterian, UPMC Montefiore UPMC Magee women's hospital, UPMC Eye&Ear institute, 그리고 Western Psychic center 이다. 이 외에도 여러 개의 연구동이 있다. 내가 주로 내과 실습을 한 병원은 UPMC Presbyterian 과 UPMC Montefiore 이다 (이 두 개의 병원 건물은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UPMC Presbyterian>



<UPMC Montefiore>

## UPMC Hematology – Consult service

내가 속해 있던 곳은 혈액종양내과의 Hematology Consult service 였는데, Oakland 의 모든 병원에서 inpatient hematologic issue 가 있으면 이 곳을 연락한다. 2 년차 (PGY-5, Post graduate year 5) 혈액종양 Fellow 가 이 분과의 management 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팀은 인턴 두 명과 2 년차 레지던트 한 명, 그리고 1-2 주에 한번씩 바뀌는 attending physician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루 동안 평균적으로 4-6 명 정도 새로운 consult 가 생기며, 팀의 레지던트와 펠로우가 환자를 분담하여 맡는다. 담당하는 펠로 혹은 레지던트는 그 환자를 직접 보러 가서 처음부터 병력 청취와 함께 H&P 를 시행한다. 오후의 회진에서는 다같이 이 환자의 management 에 대해 의논하며, 직접 환자를 보러 다니고 환자에게 현재 증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질병 치료 계획을 의논한다.

## Daily Sche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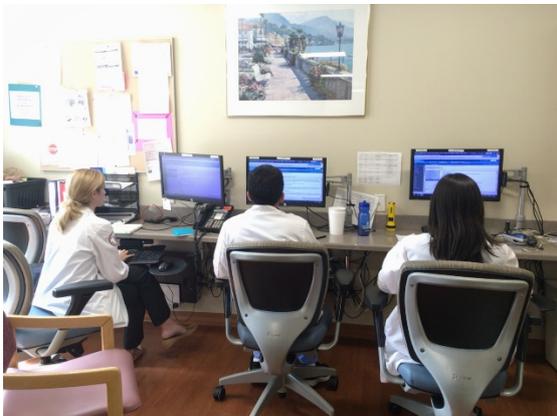
하루의 일정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아침 8 시쯤 출근하며, 12 시까지 새로운 환자를 배정받아 그 환자가 어떤 이유로 의뢰되었는지를 차트 리뷰를 통해 먼저 파악한다. 그 후 환자를 방문하여 면담하고, 신체검진을 진행하고, 환자가 의뢰된 문제에 대한 assessment 와 plan 을 포함하여 노트를 작성한다. 12 시부터 1 시까지는 내과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점심이 제공되는 Lunch Lecture 가 있다. 1 시부터는 회진인데, 각자 자신이 맡은 환자에 대한 presentation 을 하게 되며 Attending, fellow 및 레지던트들과 함께 모여 Consult 된 환자에 대한 가장 좋은 treatment 에 대해 의논하는 시간을 가진다. 회진은 보통 3 시간 정도 소요되며, 다같이 모여 환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끝나면 (보통 1 시간-1 시간 반 정도) 직접 환자를 보러 다닌다. New consult 와 함께 old consult 까지 봐야 해서 보통 10-12 명 정도를 보지만, 환자가 없을 때는 더 적게 보기도 한다. Attending 이 report 받은 내용을 토대로 환자에게 확인 질문 몇 가지를 하고 P&E 를 시행하며, 환자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management plan, 있을 수 있는 부작용, 어떤 예후를 가지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



<Rounding (회진) 모습>



<Rounding - Scope room 에서 PBS 관찰>



<Station 에서 의무기록 작성 중>



<Resident Lunch Lecture>

## 배운 점 및 느낀 점

이번 일렉티브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의료 제도 및 시스템 구성의 차이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가장 다른 점이라고 느꼈던 것은, 환자 한 명 한 명에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는 점이다. 내가 속해 있는 Consult service 는 환자에 대해 상당히 세세하게 병력청취와 케어를 하는 편이었는데 이는 한국의 consult service 와 매우 달랐다. 아무리 straightforward 한 환자라도, team approach 를 거쳐 놓치는 것은 없는지, 더 고려할 것은 없는지 등 다같이 모여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아직 배우는 입장인 resident, student 들에게는 attending physician 이 어떻게 케이스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다. 자연스럽게 discussion 을 유도하여 자신의 assessment 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서로 무엇이 더 나올지 토의하며, 환자를 위한 제일 좋은 management 를 찾아가는 방식은 어찌 보면 시간을 많이 사용하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는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고 좋은 learning opportunity 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다양한 consult service 의 의사들이 모두 모여 환자의 케이스를 논의하기도 하는 등 많은 의사들이 사고의 과정을 나누는 점도 좋았다. .

또한, 이런 시간 사용이 가능한 이유는 의사들의 근무 시간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리 일과에 쫓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Attending physician(교수) 은 rotation base 라서 각 attending 이 1-2 주 정도 이 service 에 머무는데, 오전엔 외래를 보고 오후에는 consult rounds 를 하는 것이 일과이다. 또한 consult service 를 위해 펠로나 레지던트가 다른 일에서 면제되고 이 일만 계속 한다는 점에서도 한국과 달랐다 (한국에서는 펠로, 레지던트들은 컨설팅 외에도 다른 많은 일들을 동시에 한다). 쫓기지 않고 환자를 볼 수 있어서 환자-의사 간의 rapport 형성이 더욱 공고하며, uptodate 나 pubmed 를 찾아보고 환자의 질병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는 등 의학적 지식을 쌓기에도 더욱 좋은 환경이었다. 이런 점은 참 부러웠고, 한국 또한 이렇게 여유롭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유로운 시간 사용은 환자-의사 관계를 더욱 공고히 만들어주고, 환자와의 소통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문화를 형성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Consult 를 받은 분과에서는 attending (교수) 이 직접 환자를 방문하여 현재 증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며,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환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 과정은 때로는 매우 길게 연장되어 30 분 넘게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환자 혹은 보호자의 궁금증에 답변하고 왜 이 치료가 필요한지 등의 이유를 이해시키게 된다. Consult 가 의뢰된 병원이 Magee 나 Western psychic 인 경우는 병실이 멀고, 2-3 블럭 걸어야 해서 병실에 가는 데에만 15 분이 넘게 걸리지만 환자와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단순한 내용을 전달해야 해도 회진 때 먼 거리를 오간다. 이렇게 환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 큰 감명을 받았다.

또한 병원이 환자 중심으로 돌아가며, 매우 환자에게 좋은 service 를 제공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모든 병실은 1-2 인실이며, 한 환자에게 primary nurse, care provider, housekeeping 세 명의 staff 들이 매칭된다. 이는 환자의 병실 안 whiteboard 에 기입되어 있으며, 그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서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할 수 있다. 병원 식사에 대한 메뉴판과 하루하루 치료에 대한 guideline 이 프린트되어 제공되며, 자신의 입원과 치료, 퇴원 등 모든 것에 대한 정보가 매우 accessible 하게 제공된다. 한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는 ICU 의 경우 1-2 명, Floor 의 경우 5-8 명 정도이다. 환자에게 시행하는 모든 의료적 과정에는 본인 혹은 보호자가 관여하며, 지금 어떠한 치료가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을 담당하는 family meeting 이 따로 진행된다. 이 meeting 에는 주치의와 attending physician, family meeting 담당자가 참여하며 emotional support 를 제공하고 이 모든 과정은 의무기록에 하나의 개별 entry 로 들어간다. 물론 의료 비용이 한국보다 몇 배가 비싼 미국이기에 가능한 것이겠지만, 가족들과의 family meeting 을 통해 현재 어떤 치료가 제공되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이라던지, 하루 치료에 대한 guideline 을 환자에게 제공하여 자신의 몸에 어떠한 치료가 행해지고 있는지 원활히 알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 등은 인상적이었으며 한국에 도입되면 참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본 일렉티브 실습을 통해 예비 의료인으로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 달 동안 혈액종양학적 문제를 가진 내과 환자를 H&P 부터 assessment, treatment plan, follow-up 까지의 전 치료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혈액종양학적 문제를 가진 환자들을 볼 기회가 많았으며 그들이 어떤 내과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치료를 받는지를 관찰하며 많은 실제적 지식을 체득하고 익힐 수 있었다. Hypercoagulable workup, anticoagulation guideline, CBC 에서 문제가 있는 환자의 management 등을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었으며 한국에서 보기 드문 케이스 (Factor V Leiden, hemophilia 등,) 을 실질적으로 접해보므로도 학문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attending 과 fellow 가 보내주는 JAMA, Blood 등의 journal article 들을 읽으며 최신 지견에 대해 익힐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내과적 환자의 접근에 대해 더욱 심도있게 배울 수 있었고, 혈액종양학에도 더한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실습을 통하여 미국의 의료가 어떤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많은 지식을 배워갈 수 있었다. 환자를 직접 문진하고 회진을 통해 assessment 와 plan 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며 내과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한 달이었고 내과적 지식과 혈액종양학적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현장에서 익힐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또한 이번 일렉티브를 통해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같은 의료기관이고 치료도 비슷하지만 운영되는

시스템이나 중요시하는 가치 등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미국의 의료는 소통을 상당히 중시한다는 것 또한 인상깊게 다가왔다. 이번 일렉티브 실습을 계기로,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본받아야 할 점을 본받아 미래에 한국 의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미주동창회 그린프로젝트 장학재단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훌륭한 의사로 성장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